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6호 【루계 제25339호】 주체105(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건축부문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척후대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 혁명사적물보존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나라의 종합적인 건축연구창작기지로 장성강화된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자랑스러운 행로속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건축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2년 7월 백두산건축연구원을 창립해주시고 몸소 이름도 지어주시였으며 여러차례나 현지지도하시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에 주요대상건설설계들을 직접 맡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스승이 되시여 설계안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지도해주시면서 연구원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회속에 바라보시면서 귀중한 사적물들마다에는 주체적건축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가 응축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산건축연구원은 당에서 맡겨주는 그 어떤 대상설계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건축창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관록있는 건축창작연구집단으로 자라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백두산건축연구원과 같은 건축창작연구기지들을 꾸려주시고 주체건축의 발전방향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 오늘 이 땅에서 펼쳐지고있는 건설의 최전성기, 대번영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축과학기술성과전시장, 건축설계연구실, 정보자료연구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연구원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건설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건축물,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들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건축은 고도의 예술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문명수준과 국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라고 하시면서 설계가, 건축가들은 사회주의 내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그리며 가꾸는 미술가, 원예사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당의 건설구상과 인민들의 리상을 반영한 설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건축설계에서의 류사성과 반복을 철저히 배격하고 건강건물, 특색건물, 령에네르기, 령탄소건물, 다기능화된 건물 등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사업, 건재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건축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 설계가, 건축가들의 창작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세계건축자료들을 더 많이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설계수단들을 더욱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의 과학성, 정확성, 신속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도록 당에서 최신형콤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설계수단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을 돌아보면서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것을 더 잘 알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당의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여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건축명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설계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옹호고수하며 사회주의문명개화기를 더욱 활짝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동 지

친근한 동지

나는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데 대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진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령도밑에 조국을 수호하고 강성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새로운 성과가 이룩될것이며 특히 전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서 보다 큰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발전되여 라오스와 조선 두 나라 인민에게 실질적인 리익을 가져다주고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기를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 냥 워 라 찓

2016년 7월 8일 비엔티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외교대표들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이께 밤방 히엔드라스또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쟈스민다르 카스두리아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모하마드 니잔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특명전권대사, 오순마킨데 에드워드 돌라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들과 축하편지들이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각각 전달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립니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총련의 중앙단체들과 조선신보사 등 사업체들 그리고 총련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축전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최후승리의 명마루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격동의 시기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절대불변의 충정심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온 누리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한없는 영광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가다듬게 하는 력사에 기록될 행운이라고 축전들은 강조하였다.

축전들은 력사상 가장 악랄하게 감행되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고립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물리치시고 공화국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하여 오늘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며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고 격찬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켜 총련조직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애족애국조직으로 튼튼히 다지는데 모든 힘을 다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고 축전들은 지적하였다.

축전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한 혁명적진군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숨결과 발걸음을 맞추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에서 제시된 5대과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백두산건축연구원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옹호고수하며 사회주의문명개화기를 더욱 활짝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평범한 근로자들을 천리마, 만리마에 태워주시여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겨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자욱

지난 6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만리마에 태워주시였다.

오늘의 현실이 긍지높을수록 영광넘친 력사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흘러온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근 70년사는 숭고한 인민관이 안아온 거창한 전변의 력사였고 평범한 근로자들을 시대의 한복판에서 당의 뜻을 받들어 위훈을 창조할줄 아는 선구자들로 키운 인간육성의 력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주체51(1962)년 1월 9일, 평양제사공장(당시)을 현지지도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조직하신 협의회에서 새 공장을 짓고 이사하자면 8월 15일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들은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면서 4월 15일까지는 천리마공장칭호를 쟁취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에서 동무들이 제일먼저 천리마작업반의 봉화를 들었는데 천리마공장의 첫 봉화도 동무들이 들어야 한다고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충정의 열정으로 끓어번지는 협의회장에서 일군들은 공장로동계급을 천리마에 태워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다심하신 사랑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사실 이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비단실생산을 늘이기 위해 공장을 찾으시였다. 하지만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현지에서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 사랑의 용단을 내리시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의 로동자들에 대한 관점을 바로잡아주시면서 래일부터라도 당장 착수하여 평양제사공장을 새로 건설해줄 결심을 하시였다.

한 일군은 실이나 뽑는 공장으로서 생산되는 제품에 비해볼 때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 일군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무들, 로동자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맙시다. 건설비는 공장을 다 지은 다음에 계산합시다. 로동자들에게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준 다음에 계산합시다라고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교시하시였다.

협의회장에 이름할수 없는 세찬 격정이 급이쳤다.

불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로동자들을 위하여 천만금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용단이였다.

협의회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시내교통문제, 주택이소문제를 비롯하여 녀성로력이 많은 공장종업원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도 아무 걱정없이 천리마를 탈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공장로동계급을 천리마에 태워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려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심혈과 로고는 끝없이 이어졌다.

새로 일떠선 평양제사공장이 준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2(1963)년 5월 22일 또다시 공장을 찾으시였다.

한 일군이 어버이수령님께 로동자들이 새 공장을 《비단실궁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공장을 잘 꾸리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서 천리마공장의 영예를 지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책감에 모두 고개를 수그리였다.

한해전에 위대한 수령님께 그해 4월 15일까지 천리마공장칭호를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다지였으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있었던것이였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조금도 나무람하지 않으시고 천리마공장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것이 아닌가.

문제는 공장당위원회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공장에 천리마직장이 몇이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모든 직장들이 다 천리마칭호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기는 하였지만 아직 천리마칭호를 받은 직장은 없다고 말씀드리였다.

서운한 기색을 지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직장들에서 천리마직장칭호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조사제1직장에서부터 천리마직장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수령님께서는 이 공장에서는 실을 뽑는 직장들이 키본이므로 그 직장들만 다 천리마직장칭호를 쟁취하면 천리마공장이 되는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깨우쳐주시였다.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천리마공장칭호를 쟁취할수 있겠는가를 의논해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천리마공장칭호를 맨 먼저 수여받은 대안전기공장의 경험도 알려주시고 평양시에서는 제사공장이 천리마공장칭호를 먼저 받을 희망이 있다고 신심도 안겨주시였다.

이어 천리마공장칭호쟁취를 위한 결의내용에 반영할 조항들도 가르쳐주시였다.

지녁늦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한 녀성직장장에게 천리마직장칭호를 꼭 쟁취하라고 거듭 당부하시며 돌려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도 일을 잘해서 천리마공장칭호를 받아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고 공장을 떠나시였다.

이날 몸소 촬영기를 드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수록에서 순간의 공백도 있을세라 귀중한 사진문헌들을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 평양제사공장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교시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전체 종업원들에게 침투시키고 그들을 현지교시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시였다.

그후 어섯달만에 조사제1직장은 공장에서 첫 천리마직장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평양제사공장은 당창건 20돐을 맞으며 평양시에서 제일먼저 천리마공장칭호를 쟁취하였다.

경사스러운 그날 공장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주체56(1967)년 9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던 때에도 공장에 찾아오시였다.

불파 며칠사이에 보이라에 불을 지피고 생산준비를 다그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양제사공장이 천리마공장인데 천리마공장값을 한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해방전 《평양제2감옥》이라 불리운 공장이 《비단실궁전》, 천리마공장으로, 노예나 다름없던 로동자들이 천리마기수로!

그야말로 공장도 사람도 천지개벽하였다.

이것은 당시 평양제사공장만이 아닌 온 나라의 현실이였고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혁이였다.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간육성의 위대한 령도로 천리마시대의 거창한 변혁을 조국땅우에 펼치신 어버이수령님.

이 공장로동계급에게 베풀어주신 우리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새 세기에도 끝없이 이어졌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렵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깊은 관심을 돌리시던 평양제사공장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끊임없이 울리도록 온갖 대책을 취해주시고도 주체98(2009)년 1월 15일 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생산도 잘할뿐아니라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며 지난날의 천리마공장을 전국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대소한의 추운 날씨로 하여 죄송한 심정을 금치 못하는 일군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날씨도 가리지 않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 순간 소대흔솔이 다 닳고 색이 바랜 그이의 야전솜옷이 눈에 안겨들어 일군들은 눈물이 쏟아질것만 같아 얼굴을 떨구었다.

짧은 소매옷을 입은 조사공처녀들의 일터에서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장갑을 벗지 않으시였다. 10여년세월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며 겪으신 고생의 흔적이 력력한 야전솜옷의 팔소매끝을 처녀들이 보면 가슴아파할것을 념려하시여 부터 장갑으로 가리우신것은 아닌지.

이 땅에 충정의 피를 끓이는 수천만 아들딸들이 있고 나라에서 생산한 비단천을 쌓으면 하늘에 닿으련만 모근한 솜옷 한벌마저 마다하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얼마전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그날의 사진문헌에서 한동안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2009년 1월 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돌아오시여 공장이 생산도 잘할뿐만아니라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이라고 치하하시면 위대한 장군님의 기쁨에 넘치신 음성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온다고 하시며 사무치는 그리움을 터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비단실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이라는 공장명칭을 친필로 써주시여 크나큰 영광을 공장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못 잊을 그 나날을 다시금 되새겨볼수록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있던 공장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살며 투쟁하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가 안겨와서였다.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만 새겨보아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과 위대한 혁명생애를 잘 알수 있으며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애로운 어버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믿음이 가고 정이 가는 공장의 로동계급에 대한 기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조사현장에서 비단실을 뽑고있는 녀성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처녀조사공에게로 다가가시였다.

지난 70일전투기간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제일먼저 수행하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다는 자랑찬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원이 되기도 힘들지만 당원의 영예를 빛내이는것은 더욱 쉽지 않다는 자각을 심어주시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고무해주시며 그이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기도 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문화회관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과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정책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 공장애가 차넘치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어디를 가보아도 흠잡을데가 없고 모든것이 다 마음에 드는 공장이라고, 자신께서 최근에 돌아본 공장들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태워주신 천리마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린 력사를 가진 공장,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온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이 또 어데 있으랴.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사람이라도 아쉬움이 있을세라 종업원모두를 불러 여러차례에 걸쳐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고 가시여서는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사랑과 은정을 거듭거듭 때풀어주시였다.

강건너 맞은켠에 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자합숙을 부러워하는 공장로동자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시여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어찌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태워주신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천리마시대에 이어 만리마시대에도 온 나라의 본보기로 자랑떨칠 충정의 열정으로 가슴끓이지 않을수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두에서 이끄시기에 천리마조선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한 우리 조국은 반드시 만리마의 나라로 자랑떨칠것이며 시대의 선구자, 영웅들의 대오는 끝없이 늘어날것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역할을 더욱 높이자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을 대중발동의 무기로 틀어쥐고

평안남도당위원회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를 놓고 평안남도당위원회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정치사상사업을 첨입식으로 벌려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부위원장 전명식: 옳은 말이다.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은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최단기간에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실효가 큰 사상사업방법이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정치사업을 첨입식으로 벌려야 그 실효를 높여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할수 있다.

도당위원회는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올해 농업생산에서 도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첨입식정치사상사업에 큰 힘을 넣는것을 사상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정하였다.

기자: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을 벌려나가는데서 기본은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는것이라고 본다.

부장 박동철: 우리는 정치사업에서 요점통을 바로 정하고 사상전의 포화를 공세적으로 들이댐으로써 그 위력이 영농실천에서 남김없이 과시되게 하였다.

도당위원회는 농업부문에서 다수확시, 군의 본보기를 벌방지대에서는 숙천군, 중간지대에서는 성천군, 산간지대에서는 덕천시로 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도안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도당위원회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도안의 중점대상들에 달려나갔다. 정치사업자료도 들끓는 포전에서 만들고 농업근로자들과 어울려 일하면서 격식과 틀이 없는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절린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도 세워나가는 도당위원회일군들의 화선식사업기풍은 실효가 크다.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도 일군들이 협동농장, 구체적으로 작업반, 분조들을 맡고 내려가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시, 군당위원회일군들, 농업부문 일군들이 첨입식정치사상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그중의 하나가 시, 군당위원회일군들과 농업부문 일군들을 대상으로 콤퓨터화상협의회를 주에 1차이상 실속있게 조직하고있는것이다.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방향을 명확히 주는것과 함께 영농전투에서 중시해야 할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알려주는 사업을 정상화하였다. 이것은 당조직들이 매 시기 영농전투에서 주타격방향을 바로 정하고 그에 맞게 절린 문제를 풀기 위한 정치사업을 첨입식으로 벌려나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지난 6월 문덕군당위원회가 대중을 불러일으켜 장마철전에 30여km구간의 해안방조제보수공사를 끝냈을 때였다.

도당위원회는 이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기동적으로 벌렸다. 이것이 불씨가 되여 숙천군, 증산군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에서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데 과녁을 정하고 정치사업을 첨입식으로 벌려나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장마철피해를 받을수 있는 개소들에 발동발전기를 설치하고 양수공들을 배치하여 농작물이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준비사업을 철저히 갖추게 되였던것이다.

기자: 올해 대중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추동하는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을 벌려나가는데서 도안의 당조직들이 힘을 넣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싶다.

부부장 천명국: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는 도안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당면한 영농전투에 총집중, 총동원하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잘 짜고들었다.

선동원, 학습강사, 직외강연강사, 5호담당선전원들을 비롯한 당초급선전일군들을 사상전에 총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중시했다. 이들을 발동하면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을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할수 있다고 보았던것이다.

도안의 모든 선동수단들도 영농전투장에 총집중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적으로 6 000여대의 포전방송기재들이 영농전투장에 전개되여 위력을 떨치고있다.

문덕군, 숙천군, 평원군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당초급선전일군들이 이미 있던 포전방송기재를 성능이 좋은 음향증폭식메가폰으로 바꾸었다. 새로 마련한 포전방송기재는 출력이 높으면서도 간편하기때문에 농업근로자들이 일하는 그 어느 포전에나 다 들어갈수 있다.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직외강연강사들과 콩로자강연강사들로 조직한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이 맹활약을 하고있다. 포전에 나가 농업근로자들의 일손도 돕고 설참을 리용하여 강연선전활동을 화선식으로 벌려나가고있는데 농업근로자들의 반영이 대단히 좋다.

도안의 300여명의 출판물보급원들도 도서해설선전대에 망라되여 협동농장포전들을 순회하면서 경제선동을 벌려나가고있는데 그 인기가 대단하다.

시, 군의 기동예술선동대들과 함께 도적으로 100여개의 녀맹예술선동대가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포전경제선동활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부위원장 전명식: 첨입식정치사상사업에 고무된 도안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면하게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면서 농작물비배관리에 힘을 넣고있다. 이 기세로 나간다면 가을에 가서 좋은 결실을 안아올수 있다고 확신한다.

기자: 도당위원회가 당의 의도대로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 영농전투에서 전국의 앞장에 섬으로써 올해농사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를 기대한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농촌지원사업을 짜고들어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의 기계화가 아직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조건에서 온 나라가 떨쳐나서 농촌을 로력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당조직에서는 농촌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농촌지원은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것을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지난 5월초 이곳 당조직에서는 초급당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지난 시기 농촌지원사업에서 제기된 편향들을 심각히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해당 일군들이 담당한 농장에 파견되고 연유와 농기구, 비료와 살초제를 마련하여 협동농장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였다.

황주군 삼정협동농장에 달려나간 이곳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전투 첫날부터 기세를 올리면서 농장벌에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기계공업성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정무원들에게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기어이 풀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새겨주면서 사회주의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모든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바쁜 속에서도 농사일을 자기 일로 여기고 뜨락또르부속품을 비롯한 수많은 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였다. 당조직에서는 당면한 영농전투에 로력을 철저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담당한 농장마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려주기 위한 사업도 조직하였다.

금속공업성 당조직에서는 협동농장에 영농자재를 비롯한 지원물자를 보내주는데 그치지 않고 당일군들이 직접 영농전투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농촌지원전투에 동원된 정무원들은 당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이신작칙에 고무되여 맡은 일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경공업성 당조직에서는 농업전선을 함께 지켜섰다는 립장에서 농촌을 물심량면으로 잘 도와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여러차례에 걸쳐 수안군 산북협동농장에 내려간 성의 책임일군들은 영농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결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많은 량의 연유와 기계기름, 백수십점의 소농기구를 농장에 보내주게 되였다. 얼마전에는 6.1절과 6.6절을 맞으며 리안의 유치원어린이들과 소년단원들에게 당과류와 학용품도 성의껏 준비하여 보내주었다.

상업성의 당책임일군들도 농촌지원전투에 참가한 성안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준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누구나 농촌지원전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밖에도 많은 량의 연유와 뜨락또르다이야, 양수설비, 비닐박막 등을 지원한 체신성, 철도성을 비롯하여 국가물질감독위원회, 수매량정성, 화학공업성, 로동성, 국가관광총국, 중앙산업미술지도국, 공업출판사, 출판지도국 등 여러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모든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농촌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농사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 총동원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농촌지원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은 온 나라에 농사중시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윤 명 철

예술소품경연을 통해 거둔 성과

황주군 순천리당위원회 사업에서

모내기와 김매기를 비롯한 올해 영농전투마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 황주군 순천리에 대한 취재과정에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것은 작업반별예술소품경연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1월, 작업반들을 돌아보던 리당위원장 박응삼동무는 일부 작업반들에서 영농준비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작업반원들의 단합에 문제가 있었다. 단합을 이루지 못한 현상들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있었으며 그것은 작업반의 전투력에 영향을 주었던것이다.

그러니 영농전투실적이 떨어질수밖에 없었다. 심중한 문제였다.

사색을 거듭하며 해결방도를 모색하던 리당일군의 머리속에 하나의 안이 떠올랐다. 작업반별예술소품경연을 조직하는것이였다.

일부 일군들은 이것을 큰것으로 보지 않았지만 리당일군은 확신하였다.

작업반별예술소품경연에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빠짐없이 참가시키면 그 과정에 많은것이 해결될것으로 보았던것이다.

작업반별예술소품경연을 조직하면서 리당위원장이 몸을 들인것은 경연조직요강이였다.

경연평가는 점수제로 하되 작업반초급일군이나 농장원이 한명이라도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점수를 대폭 삭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합창을 위주로 하면서 독창과 2중창을 비롯한 여러 종목을 배합하고 안삼불의 수준에 따라 점수를 더 주도록 하였다.

경연에서 1등한 작업반에는 높은 평가와 함께 시상도 잘하도록 하였다.

실효는 컸다.

모든 작업반들이 이 사업에 승벽심을 안고 떨쳐나섰다.

농산제4작업반 초급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작업반의 영예를 빛내이는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사상교양사업도 하고 절린 문제들도 적극 풀어주어 그들이 경연준비사업에 나서게 하였다. 또한 농산제9작업반에서는 농장원들이 안삼불을 맞추어가는 과정에 전례없던 단합과 화목을 이루게 되였다.

결국 단위의 특성에 맞게 참신하게 진행된 이 예술소품경연은 작업반, 나아가서 온 농장을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집단력이 강한 단위로 만드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이것은 곧 높은 영농실적으로 이어졌다. 포전마다에서 전투실적이 부쩍 뛰어올랐다.

그러니 사업에서 옳은 방법론을 찾아낼 때 얼마나 큰 열매를 얻게 되는것인가.

허 일 무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중시할 때

은률군 송관리당위원회 사업에서

당면한 영농공정별전투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는 은률군 송관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그 실효를 높이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야 합니다.》

지난 6월 어느날 리당위원장 오광철동무는 당면한 영농전투실적총화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놓고 생각이 많았다.

모임에서 한 일군이 실적이 낮은 농산제5작업반의 한 초급일군을 추궁하였는데 비판을 접수하는 그의 태도가 성실치 못했던것이다.

다음날 이른아침 그 작업반에 내려간 리당일군은 농장원들과 함께 모뜨기작업을 하면서 탐화하는 과정에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였다.

사실 그 초급일군이 작업반의 영농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지난해에 입은 엄피해를 가시자고 밤이 닳도록 뛰여다녔고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도 하였다. 생활상애로를 느끼고있는 농장원세대의 접수리도 해주고 물심량면으로 도와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응당한 성과가 이룩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초급일군의 대중발동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가 도맡아안고 뛰여야 한다고 여기면서 절린 문제해결을 농장원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초급일군들이 농장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면서 그들의 앞장에서 솔선 모범을 보이며 제기된 문제를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갈 때 작업반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여나갈수 있다고 리당일군은 생각하였다.

실천적모범으로 그는 작업반 초급일군들을 이끌었다.

1분조 농장원 조성현동무의 가정을 비롯한 농장원세대를 맡아 생활상애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농장원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아름다운 소행자료들을 적극 찾아내여 소개선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농장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갔다.

이것을 목격하면서 작업반초급일군은 자기 사업의 민구석을 찾게 되였으며 새로운 결심을 안고 분발해나섰다.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갔으며 이동식포전방송기재를 전투장에 전개하고 선동원들이 선동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도 잘 짜고들었다.

작업반의 모든 초급일군들도 떨쳐나섰다.

농장원대중속에 들어가 비록 자그마한 소행자료라도 놓치지 않고 아침독보시간과 전투의 설참에 그리고 하루작업총화 등 여러 계기를 통하여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의 모임에서 그 초급일군의 경험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뒤떨어졌던 작업반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단연 앞자리를 차지할수 있게 된 경험은 참가자들에게서 좋은 반영을 불러일으켰다.

리당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초급일군들의 역할문제를 중시하고 농장안의 모든 초급일군들의 사업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그 과정에 분조가 분조를 돕고 작업반이 작업반을 돕는 미풍이 불려나 온 농장에 집단주의열풍이 더욱 뜨겁게 차넘치게 되였다.

기계화작업반 수리분조원들의 역할이 높아져 그들이 만든 심층시비기들이 농산작업반들에 공급되고 축산작업반에서는 1 000㎡의 《애국풀》 포전을 마련한것을 비롯하여 집단의 단합된 힘은 많은 성과를 안아왔다.

농장이 모내기전투에서는 물론 김매기전투에서도 근석으로 앞선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달리게 된 비결의 하나는 바로 리당위원회가 대중발동에서 초급일군들의 역할문제를 중시하고 당적지도를 강화한데 있다.

본사기자 장 철 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틀어나가도록 하고있다.
—구성시 오봉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김책대경수산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이로전은 곧 두뇌전, 기술전이다.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강조하고있는 이 문제는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는 오늘 수산부문에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지난 10여년간 해마다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한 김책대경수산사업소에서 지난해에도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초급당위원회가 수산업의 과학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로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적극 불러일으킨 결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물고기잡이를 과학화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일부 수산부문 일군들은 왜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는가 하는 물음에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 없기때문이라고 말하군 하였다.

물론 10여년전부터 어황이 적지 않게 변한것은 사실이다. 찬물, 더운물흐름이 달라져 지난 시기에는 많이 잡히던 어족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얼마든지 있다. 이것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은 물론 김책대경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지난 시기와 차이점이 있다면 변화되는 바다조건으로 하여 회유성물고기떼가 우리 나라 해역에 들어오는 시기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그 자리길이 이동함따름이라는것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경험과 요행수만으로는 오늘날 물고기잡이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 출로가 바로 과학적인 어로전에 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8년전에 벌써 김책대경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변화된 어황상태에 맞게 물고기잡이를 과학화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고기배를 만능선으로 개조하고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새 어장을 탐색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수산업의 과학화실현을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과학적인 어로전을 추동하기 위한 초급당위원회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중심고리를 옳게 정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일관성있게 밀고나간것이다.

고기배는 물고기잡이의 기본수단의 하나이다. 고기배를 현대화, 만능화하지 않고서는 과학적인 어로전을 기대할수 없다.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고기배를 만능선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지배인 최권수동무가 2선단 9492호의 주기관을 개조할 결심을 터놓았을 때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기관받침대가 견딜수 있겠는가, 더우기 추진기축을 감싸고있는 선미판을 해체해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도 많은 줄이 들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였다.

이때 초급당일군들은 기술자, 로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그들의 지혜와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렸다. 변화된 어황조건에 맞게 물고기잡이실적을 올리자면 마력수가 높은 선박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자체의 힘으로 고기배를 개조하는 길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 만선의 열쇠는 바로 우리들의 심장속에 있다. …

당일군들의 절절한 목소리는 대중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기술자, 로동자들은 고기배개조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 과정에 설계원 최성희동무는 선미판을 해체하지 않으면서도 기관교체를 원만히 진행할수 있는 기발한 착상을 내놓았다. 점 하나, 선 하나에도 고심어린 탐구와 애국의 열정이 어려있는 그의 설계도면을 보며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분발하였다.

이렇게 되여 불과 몇달사이에 고기배의 기관들이 교체되게 되였다. 결과 선박속도와 전광능력이 훨씬 높아지고 뜨랄작업능률은 10%이상 높아져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게 되였다.

지난 3년간 사업소에서는 여러척의 선박들의 주기관을 능력이 큰 기관들로 교체하고 전양기를 비롯한 어로설비들을 거기에 맞게 제작설치함으로써 전착, 뜨랄을 리용한 여러가지 어로활동을 적극적으로, 기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도 자체의 힘으로 《황금해》 호제렬의 현대적인 고기배를 무어내였다. 이것은 초급당위원회가 고기배의 현대화, 만능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준 결과이다.

고기배의 현대화가 실현되였다고 하여 만사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세우고 앞선 어로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도 동시에 밀고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물고기는 물온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물고기를 많이 잡자면 바다물온도를 비롯한 바다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것이다.

초급당위원회는 사업소에 틀튜어에 의한 바다상태통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단계별로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그 관철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위성통신체계로부터 바다물온도와 어황, 바람방향과 물흐름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통보받고 그것을 바다에 나가있는 고기배들에 전송하여주는 과학적인 어로탐색체계가 도입되게 되였다. 그리고 모든 고기배들에 현대적인 어군탐지기와 항적지시기를 설치하여 물고기들의 회유와 군집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물고기잡이를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하였다.

사업소에서 2척뜨랄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벌어질 때였다. 처음 해보는 어로방법이여서 로동자들은 몹시 긴장되여있었다. 기술과장 고동철동무와 함께 바다에 나간 초급당일군은 어로공들에게 구수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바다의 노래》도 함께 부르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었다. 그러면서 바다의 정복자라는 배짱을 지니고 앞선 어로방법을 기어이 성공시키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떨쳐나선 선장 김정학동무를 비롯한 어로공들은 물고기잡이전투를 파감하게 벌렸다. 이 과정에 그들은 합리적인 예망속도와 끌줄의 길이, 두 배사이의 벌림거리와 그물의장품들의 적합한 치수들을 찾아내여 끝내 2척뜨랄방법을 성공시켰다. 그리하여 물고기생산량을 20%이상 더 높이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그들을 황금해의 새 력사창조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초급당위원회는 주마다 기술일군들이 출연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과학기술학습이 물고기잡이와 가공, 배수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주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한편 직장, 작업반단위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종업원들 누구나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 중앙과학기술통보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홈페지들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열람할수 있게 하였다. 지배인, 초급당위원장, 기사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일군들과 기술자들부터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의 학생이 되여 현대과학기술을 때우는데서 앞장서고있다.

결과 일군들부터 어로공들에 이르기까지 바다상태와 물고기들의 특성, 각이한 온도에 따르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환히 꿰뚫게 되였으며 물고기잡이를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현대화된 고기배와 과학적인 어로체계, 선진적인 어로방법에 토대하여 사업소에서는 기망당 물고기생산량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여러가지 조건을 내대거나 우만 쳐다보면서 과학적인 어로전을 벌리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내밀지 못하면 물고기생산을 늘일수 없고 그저 바다에 물고기가 없다는 맥빠진 소리만 하게 된다.

현실은 수산부문의 당조직들이 과학화수준의 높이이자 물고기생산실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근로자들속에서 두뇌전, 기술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 때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승 표

강원도에서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충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큰물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에서는 큰물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련합지휘부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들과 탄광, 광산을 비롯한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장마철생산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였다. 특히 비바람과 큰물의 영향을 받을수 있는 대상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현실조건에 맞게 피해막이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있다.

시, 군들에서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도록 하고있다.

도의 모든 시, 군들의 일군들이 큰물에 의한 산사태로 피해를 입을수 있는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피해막이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놓았다. 또한 주민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벌려 장마철기간에 살림집들에서 폭우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있다.

도의 농업부문에서도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놓고있다.

문천시와 안변군을 비롯한 도의 시, 군들에서는 농경지들이 무더기비에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와 물도랑을 정비하고 양수설비들을 만가동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고있다. 이와 함께 장마철논물관리와 강냉이밭가꾸기에 깊은 관심을 돌려 벼와 강냉이가 센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있다.

원산청년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들에서는 언제와 수문들을 제때에 보수정비하여 많은 물을 잡아 전력생산을 높이는것과 함께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들이 큰물이나 비락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도의 송배전단위들에서도 철탑과 송변전설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해나가고있다.

도의 체신부문들에서는 통신선로들에 대한 보수와 통신케블보수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장마철에도 통신을 신속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장마철기간에 갱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막장들에 펌프와 배관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였고 원산철도분국에서는 철길로반과 철다리를 비롯한 시설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놓고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 헌 일

위대한 년대의 메아리—피로써 쟁취한 승리 영원히 빛내여가라

노래 《전쟁의 3년간》에 대하여

지난해 7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경축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무대에서 노래 《전쟁의 3년간》이 울려나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을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한 항일혁명투사들과 가렬한 그 나날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로병들, 온 나라 군대와 인민, 청년학생들이 깊은 사색속에서 이 노래를 새기였다.

전승세대가 후대들에게 들려주는 생동한 전쟁이야기와도 같이 심금을 끌어당기는 노래 《전쟁의 3년간》의 구절들은 정녕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오늘의 새 세대들로 하여금 우리 조국이 헤쳐온 1950년대의 3년간에 대하여 심장으로 절감할수 있게 한 위대한 년대의 메아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50년대 용사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한 위대한 시대정신이며 천만군민에게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선군조선의 넋입니다.》

노래 《전쟁의 3년간》은 지난 1950년대 조선인민이 겪은 3년간의 전쟁의 의미를 심오한 서정속에서 밝혀내고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가 얼마나 값비싼것인가를 뼈에 사무치게 새겨주는 력사의 교과서와도 같은 귀중한 명곡이다.

노래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전쟁의 3년세월 길었던가 짧았던가 불속에 고통속에 잠겼던 3년…》

인류사에는 수십년 지어 세기를 이어가며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여있다. 허나 그 전쟁들과 맞먹을 정도로 처절했고 참혹했던 3년간의 조선전쟁이였다.

참된 삶의 열기로 충만되였던 인민과 살인, 략탈로 비대해지고 오만해진 제국주의 침략자들과의 싸움은 세상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힘과 힘의 대결, 불과 불의 격전이라는 의미만으로는 그 면모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3년동안에 19세기의 100년간에 인류가 전쟁으로 낸 사상자수와 거의 맞먹는 사상자가 났으며 공화국북반부의 전 령토에서 보면 1㎡당 18개의 폭탄이 해당될만큼 미제의 무차별적인 폭격이 감행되였다. 신천과 수산리, 거제도와 제주도, 대전과 로근리에서 미제가 저지른 야수적만행은 인류전쟁사에 있어보지 못한 몸서리치는 범죄였다. 말그대로 대양도 검은 연기속에 피갈이 타버리고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의 3년이였다.

력사의 진실을 전하며 울리는 노래는 전쟁의 나날 미제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 가슴아픈 참상에 대하여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세계에는 전쟁의 나날을 수록한 기록영화들도 많으며 전쟁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들과 도서들 역시 력사의 나날에 인류가 당한 고통만큼, 수많은 전쟁들을 통하여 인류가 찾게 되는 교훈만큼 헤아릴수없이 많다.

하지만 《전쟁의 3년간》과 같이 한편의 노래로 그 모든 사실을 화폭처럼 그려낸적은 아직 없었다.

…

산야엔 흙보다도 한피가 더 밟히고
강들엔 눈물과 피가 흘렀네
새들도 사라지고 꽃들도 재가 된
참혹한 전쟁이였네
거리와 마을들에선 애처로운 울음소리뿐
영원히 잊지 않아 아파도 기억하리 전쟁의
3년간

…

구태여 다른 설명이 필요없다. 노래의 구절구절이 이 땅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날들을 대신하였고 시련의 날과 달들을 헤쳐온 조국과 인민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푸른 숲 우거지고 온갖 꽃들이 피여나던 산야가 불에 타고 찢겨졌던 조국땅이 화폭처럼 펼쳐지고 피고인 가슴을 부여잡으며 희생된 전우들과 작별해야만 했던 병사들의 그날의 심정이 노래가 되여 울리고있다.

《숨이 진 전우들을 묻지도 못했다네 덮어줄 기폭마저 총탄에 찢겼네》

결코 비애가 아니였다. 절망은 더우기 아니였다. 그것은 불비쏟아지던 격전장에서 쓰러지는 전우들을 뒤돌아볼새도 없이 적진을 향해 돌격하던 어제날의 용사들, 살아있는 우리 로병들의 응어리진 가슴속에서 울리는 력사의 절규였다.

이와 같이 혁명적비장성이 짙은 가사의 형상을 통하여 전화의 나날을 방불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전쟁이 어떤것이며 얼마나 가슴아픈 희생을 가져왔는가를 절감할수 있게 한 여기에 노래 《전쟁의 3년간》의 형상적특성이 있다.

노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흘러간 나날에 대한 회억으로만 끝날수 없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심정이기에 노래 《전쟁의 3년간》은 계속하여 전하고있다.

…

전쟁의 3년세월 목숨과 맞바꾸어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켰네
귀한것 잃었지만 귀한것 얻었네
위대한 승리란 그것을

…

노래 《전쟁의 3년간》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것을 지켜 싸우는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힘은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다는 진리를 격조높이 구가한 전승의 찬가이다.

《귀한것 잃었지만 귀한것 얻었네》

사람들 누구나가 깊은 사색속에 음미해보는 뜻깊은 구절이다.

이 짧은 구절에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무게가 실려있으며 《전쟁의 3년간》의 노래가 심스러운 수호의 노래, 위대한 승리의 노래로 되게 한 사상예술적력이 담겨져있다.

전쟁은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다. 과연 우리 인민은 전쟁의 3년간에 얼마나 많은 귀한것을 잃었던가.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형제자매, 정다왔던 고향사람들이 피흘리며 쓰러졌고 귀중한 전우들을 잃었다. 아까운 생들이 너무나 일찌기, 너무도 가슴아프게 우리곁을 떠나갔다.

그러나 가사에도 있는것처럼 1950년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며 목숨바쳐 지켜낸것이 있었으니 다름아닌 조국의 존엄과 명예였다. 위대한 승리였다.

목숨보다 귀중한 존엄과 명예, 이 진리를 삶의 명줄로 간직한 사람만이 목숨으로 그것을 지켜낼수 있는 법이다.

1950년대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것을 3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인류앞에 증명해보였다.

금같은 해방의 기쁨안고 행복의 웃음속에 살던 인민이였다. 아름다운 래일을 위하여 끝없이 헌신하던 인민의 애국열기로 끓어번지던 조선이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우리 인민이 수령님의 품에 안겨 산 5년세월은 비록 길지 않았어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할수 있은 위대한 생의 요람기였다.

해방전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 짐승만도 못한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던 사람들, 사는것이 그대로 치욕과 고통으로 되였던 사람들에게 해방은 기적과도 같은 운명의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생이 어떤것인지 알게 되였고 조국이 있어 인간의 참된 권리와 삶이 있음을 심장으로 체험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런 우리 인민에게서 생명처럼 귀중한 생활을 빼앗으려고 미제침략자들이 달려들었다. 어리석게도 조선인민을 또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전쟁의 불을 질렀던것이다.

포탄이 작렬하고 총탄이 날아들며 귀중한 모든것이 불속에 잠겼다. 환희에 겨웠던 인민의 얼굴에는 분노가 어리였고 창조의 더운 땀이 스며들던 이 땅에는 피와 눈물이 흘렀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조선을 지켜보고있을 때 우리 인민은 자기의 목숨으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켰고 침략의 마수에서 소중한 모든것을 구원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리수복, 강호영, 안영애와 같은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의 더운 피가 면적의 전격로들에 뜨겁게 슴배였고 그 길들이 하나로 이어져 승리의 진군길을 열어놓았다.

그렇다. 잃기만 한것이 아니였다.

카렬처절했던 3년세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신들의 운명과 영예는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는 삶의 진리를 신념의 기둥으로 굳게 간직하였다.

승리는 피로써 지켜야 한다는 귀중한 투쟁의 진리를 얻었으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싸울 때 절령 못할 고지가 없고 이기지 못할 적이 없다는 무적필승의 배짱과 신심을 얻었다.

노래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형상의 초점을 돌리면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발휘된 숭고한 조국수호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에 대한 열렬한 격찬으로 형상의 세계를 더욱 폭넓게 일반화하였으며 그것을 위대한 전승사에 대한 력사의 총화로 보다 철학성있게 깊이 파고듦으로써 3년간의 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쟁취한 귀중한 승리에 대한 사상예술적해명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래 《전쟁의 3년간》은 침략의 원흉이며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에 의해 강요된 가렬한 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흘린 피가 얼마나 값비싼것이며 이룩한 승리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하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에 심오한 사상예술적해답을 줄수 있었다.

또한 1950년대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숭고한 조국수호정신, 불굴의 투쟁정신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말고 대를 이어 계승해야 할 위대한 넋이라는 력사의 철리를 움직일수 없는 생활의 론리속에서 완벽한 예술형상으로 밝혀낼수 있었다.

노래의 심오한 시적형상을 훌륭히 안받침하고있는 음악선률은 매우 인상적이다.

깊은 여운을 안겨주는 사색적인 정서와 강렬한 호소성을 자아내는 의지의 정서가 훌륭히 결합되여 흐르는 노래의 음악선률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문경고개》, 《전호속의 나의 노래》, 《내 고향의 정든 집》과 같은 전시서정가요들에서 창조된 우수한 양상적특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력사적인 감정과 현대적미감을 다같이 살려내고있는 노래의 음악선률에는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불타게 하는 뜨거운것이 흐르고있다. 보진 시련과 난관, 희생을 무릅쓰고 싸운 영웅전사들의 그날의 심정이 비껴든듯 혁명적비장감이 우러나오기도 하고 억센 의지와 강렬한 호소로 충만되기도 한다. 하기에 노래의 음악선률을 새기느라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걸고 싸운 결전의 날들을 추억하는 로병들의 심중의 세계도 읽을수 있고 그 위대한 넋을 경건한 감정속에 심장에 쪼아박는 후대들의 결의를 다같이 새기게 되는것이다.

진정한 명곡의 가치는 그 어떤 매력적인 시어나 인상깊은 선률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이 심장마다에 뜨겁게 가닿아 놀라운 감화력을 발휘할 때 노래는 진정한 명곡의 가치를 지닐수 있다.

전쟁에 대한 추억은 심장의 추억이라는 말이 있다.

말과 글로써가 아니라 심장의 체험으로 력사를 받아들일 때 그 심장의 울림은 만사람을 격동시킨다.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의 전승세대들은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것에 대하여, 보다 큰 승리에 대하여 희생된 전우들과 심장의 대화를 나누고있고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새 세대들은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참된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에 깊이 머리숙이게 된다.

…

소중한 모든것을 시련에서 구원한 날들
영원히 잊지 않아 위대한 전승사를 전쟁의
3년간

이것은 필승의 신념을 지닌 강자의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격정의 함성이며 승리를 확신하는 강자의 웨침이다. 결전에로 부르는 강렬한 호소나 원쑤들을 쳐부신 환희의 감정은 보이지 않아도 노래에는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강렬한 조국애에서 솟발한 승리의 서정이 흐르고있으며 위대한 승리의 전통과 력사를 더욱 빛내여갈 신념의 결의가 차넘치고있다.

전쟁의 흔적은 가셔버릴수 있어도 인민의 가슴속에 새겨진 력사의 상처는 절대로 잊혀질수도 지워질수도 없다.

진실을 파헤치고 그 모진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밝혀내여 똑똑히 새겨주고 1950년대의 영웅세대가 안아온 빛나는 승리의 력사, 위대한 전승사를 후대들에게 억세게 심어주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간주할 때 《전쟁의 3년간》과 같은 훌륭한 걸작을 내놓을수 있다.

실로 노래 《전쟁의 3년간》은 력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체현한 전형적인 세부들에 대한 독특하고 개성적인 예술적형상을 창조하고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를 훌륭히 구현한것으로 하여 주체가요예술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빛나는 승리의 전통을 심장마다에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력사, 위대한 투쟁, 위대한 현실을 안고 태어난 노래 《전쟁의 3년간》은 창작된 첫날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반제계급의식을 더욱 억세게 벼리여주고있으며 열렬한 조국수호정신을 깊이 심어주면서 비상한 감화력을 발휘하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전적으로 음악을 혁명발전의 위력한 무기로 내세우시고 주체예술의 발전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지도속에서 마련될수 있었다.

지난해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의 연단에서 우리의 로병들은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력사를 체현한 증언자들이며 위대한 수령들의 존함과 함께 불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으며 한 구절한구절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전쟁의 3년간》과 같은 훌륭한 노래를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안겨주심으로써 전승의 7월을 더욱 뜻깊게 빛내주시였다.

전쟁의 노래는 가치도 크지만 그 메아리가 안겨주는 시대의 어운은 더욱 크다.

평화가 귀중하거늘 승리로 그것을 지키라.

어제날용사들의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리고 한사람두사람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만 그들의 넋은 오늘도 후손들의 심장을 울리고있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조국수호정신, 이것은 그 어떤 물리적힘에도 비할수 없는 선군조선의 최강의 힘이며 우리 새 세대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인 1950년대의 전승세대들에게서 넘겨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이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래일이 있을수 없는것처럼 불사신의 기상으로 침략자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안아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설적인 위훈과 피어린 자욱들은 강성하는 조국과 더불어 더욱 빛나고있으며 위대한 전승사를 영원히 잊지 않고 대를 이어 빛내여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걸음마다 승리를 떨치고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60여년이 흘렀어도 우리 조국땅은 여전히 반제계급투쟁의 최전방으로 되고있다. 1950년대의 6.25가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후대들앞에 이룩한 불멸의 공적이 이 노래에 굴이치고있다.

세기를 이어 다져온 우리의 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날강도 미제와 보병총을 잡고 맞섰던 1950년대 그때와는 다르다. 우리는 그 어떤 6.25도 사회주의강국의 7.27로 짓부셔버릴수 있는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1950년대의 패전의 수치와 수십년에 걸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파산의 교훈도 모르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다하고있다. 만약 적들이 력사의 범죄적인 전통을 망각하고 우리 조국에 또다시 전쟁의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을 최후멸망의 무덤속에 몰아넣고 조국통일대전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위대한 시대, 위대한 년대를 개척한 선렬들의 투쟁정신이 계승되는 우리 혁명은 백전백승한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7.27행진곡》, 《전쟁의 3년간》과 같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전승찬가들을 심장으로 높이 부르며 이 땅우에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우뚝 일떠세울것이며 자랑찬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갈것이다.

우 정 혁

농업부문 녀성일군들이 받아안은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혁명전사들의 삶은 끝없이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충정의 200일전투의 보람찬 전군중에서 일흔번째 생일을 맞는 로력영웅들인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고문 방애선, 사동구역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명연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농사군의 가정에서 태여난 방애선은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오랜 기간 농업부문에서 일하면서 알곡증산투쟁에 헌신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를 한개 농장의 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그가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농사를 잘 지은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이 나날 그는 도의 농사를 책임진 일군으로, 로력영웅으로 자라났으며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처녀시절부터 장천벌을 지켜온 김명연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작업반장, 관리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남새농사를 잘 지어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였다.

주체63(1974)년 1월 전국농업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치하를 받아안은 그날의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한 그는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어 수십년간 농사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을 굳건히 지켜온 이들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불러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방애선, 김명연과 가족, 친척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도안을 창작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간다.
—중앙산업미술지도국에서—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산업미술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탄전이 자랑하는 제대군인갱장

2.8직동청년탄광 3갱 갱장 리경섭동무를 가리켜 탄부들은 손락이 센 진짜배기일군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그 말속에는 수십년간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석탄증산으로 부강조국을 억척같이 받들어가는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있다. 탄광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때로부터 채탄공, 소대장, 중대장을 거쳐 갱장으로 일해오면서 그는 언제나 한본새로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있다.

오늘 3갱이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갱으로, 전투력있는 갱으로 소문나게 된데는 그의 헌신적노력이 깃들어있다. 사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채탄구역이 다른 갱들에 비해 불리한것으로 하여 3갱의 생산실적은 그리 높지 못하였다.

리경섭동무는 석탄생산실적은 결코 객관적조건이 아니라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탄부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뿐만아니라 굴진, 채탄막장을 오르내리며 탄부들과 함께 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능숙한 전투조직과 지휘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었다.

그의 전투적인 일본새로 하여 짧은 기간에 갱의 면모는 일신되고 3갱은 탄광적인 본보기갱, 집단력이 강한 갱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오늘도 그는 탄부들을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대오의 앞장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청 일

이런 애국심에 떠받들려 세포땅의 천지개벽이 펼쳐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당의 뜻을 받들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자기의 손으로 이 땅, 이 하늘아래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불타는 애국심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도 높이 발현되고있다.

개척자들의 불같은 지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포등관을 개간하여 광활한 들판을 조성하고 대규모의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일떠세울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연구사 리상철동무의 가슴은 흥분으로 높뛰였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시며 제일 좋은 모든것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제일 앞장에 자기도 서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되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달려나간 그는 축산물증산목표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으며 가정에서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대외전람총국 아래단위 김은향동무는 집안의 외동딸이다. 그래서 가정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싶이 했다. 그의 어머니는 처녀시절에 북부철길건설에 참가했던 건설자의 한사람이였다. 학창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는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이야기는 김은향동무의 가슴속에 청춘시절의 소중한 꿈을 새겨주었다.

그는 어머니의 청춘시절처럼 먼 후날에도 부끄럽지 않은 추억을 간직하고싶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으로 달려갔다. 세찬 눈보라와 삼복의 무더위속에서도 굴함없이 한치한치 풀판을 조성해가는 격전속에서 집단의 귀중함과 애국의 참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 김은향동무는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돌격대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대성은행 김경일동무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참가한 첫날부터 혁신자의 영예를 떨치였다. 지난 기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애국의 의지를 더욱 굳힌 그는 가정에서 많은 지원물자를 준비하여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평안북도인민보안국 로동자 김성일동무는 돌격대원들의 앞장에서 땅을 걷구고 풀판을 가꾸는 바쁜 속에서도 인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그는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받드는 길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을 안고 건설에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마련하여 청년돌격대원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었다.

로동당시대의 천지개벽을 노래하며 락원의 선경을 펼치고있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날과 날들은 미더운 개척자들의 이런 불같은 애국의 지향속에 흐르고있다.

심장이 가리킨 길

인민보안성 아래단위 일군 최연순동무와 종업원들은 지난 기간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한것으로 소문이 났다.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세포등관을 나라의 종합적인 축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건설이 시작되자 최연순동무와 종업원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그곳으로 달리였다.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축산기지에서 생산한 많은 돼지고기와 닭알을 가지고 건설장으로 달려갔다.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도 안겨주고 돌격대원들과 일도 함께 하던 나날 그들의 가슴속에는 애국의 일념이 더욱 세차게 불타올랐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는데서 강원땅의 주인들이 응당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면서 최연순동무와 종업원들은 지금까지 10여차에 걸쳐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돌격대원들을 찾아갔다. 우리 어린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서는 어느 한 유치원, 락아소건설장에도 이들은 성의껏 마련한 많은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강원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 아래단위 로동자 손영식동무는 안해와 함께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해가지고 건설장으로 달려갔다. 인민의 웃음꽃이 피여날 행복의 래일을 그려보며 억척스레 일손을 다그치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은 꼭 조국보위초소에선 아들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원군을 가풍으로, 가정의 행복으로 삼고 그들이 걸어온 원군의 길은 심장이 가리킨 애국의 길이였다.

보통강구역공업품종합상점 로동자 한일남동무는 운행길에서 자주 세포등관에 들리군 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새 모습으로 전변되는 축산기지건설장과 자연의 횡포한 광란속에서도 결사관철의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내달리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바치고싶은 충동을 느끼였다. 그는 어머차례에 걸쳐 가정에서 준비한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돌격대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훈과 혁신에로 힘껏 떠밀어주었다.

체신성 중앙이동통신기재관매소 로동자 황은경동무도 세포등관을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황은경동무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끊임없는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는 심정으로 많은 지원물자를 준비하여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줌으로써 군인가족의 고결한 풍모를 보여주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기능공양성소 일군인 리성철동무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려가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었다. 비록 일러는 다르지만 세포등관개척자들과 마음과 숨결을 맞추며 리성철동무는 오늘도 애국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고있다.

평천구역체신소 로동자 리금복동무는 평범한 로동자의 자식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마음껏 공부할수 있도록 해준 당의 사랑에 보답할 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웠다. 그는 과학기술전당건설이 진행될 때에도 야간지원돌격대활동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어려차례에 걸쳐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세포지구에 세계적인 축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대외전람총국 안철남, 인민보안성 아래단위 로동자 허남혁, 중앙기관의 어느 한 단위 김현수, 김일성종합대학 재정대학 학생 조충원, 철도성 정치국 우벌, 회창군청년동맹위원회 일군 한철송, 해주육아원 로동자 신혜향, 평양외국어대학 학생 렴국철, 평천구역원림사업소 로동자 최영아동무들도 있다.

이런 고결한 애국심에 떠받들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는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의 빛나는 위훈들이 창조되는것이다. 세포지구가 들썩하게 승리의 만세소리 울려퍼질 그날이 더욱 앞당겨지고있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혈육들이 안겨준 생의 희열

저는 몇해전 군사임무수행중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하반신마비의 몸으로 제대되였습니다. 집안의 외독자인 제가 군사복무불가능이라는 의학적결론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 저의 가슴도 쓰리고 아팠으며 생의 의욕마저 사라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심장속에는 고마운 조국을 위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 희열과 랑만을 친혈육마도 같은 고마운 사람들이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모진 아픔으로 고통을 겪을 때 병치료에 좋은 약재들을 가지고 찾아와 저를 따뜻이 위로해준 권충국, 최광성동무를 비롯한 문화성 아래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저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명절날마다 찾아와 생활의 구석구석을 알아보고 돌봐주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어느 한 공장의 지배인동지와 종업원들을 비롯하여 저를 위해 바치는 아름다운 인간들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고마운 사람들의 진정에 떠받들려 저는 지난 2월 은파군에서 살던 리향미동무와 만사람의 축복속에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락랑구역의 책임일군들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새살림에 필요한 갖가지 살림도구들을 그쯘하게 갖추어주었습니다.

친부모도 못다해줄 뜨거운 사랑이 어린 결혼상앞에서 저는 이런 훌륭한 일군들과 동지들을 친혈육이 되게 하여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한없이 따사로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서는 그 어떤 생이라 해도 활짝 꽃펴난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은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마음속의 군복을 영원히 벗지 않고 삶을 빛내여 나가겠습니다.

락랑구역 승리1동 79인민반
특류영예군인 김 대 성

일심단결의 대화원에서 꽃펴나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하여

옥류아동병원 이비인후과 및 두경부외과의 의료일군들

얼마전 철원군 마방리에 살고있는 리경옥녀성은 본사편집국으로 이런 글을 보내여왔다.

《…10년동안 온갖 신고를 다해서도 고치지 못했던 아들의 병,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의 집 옥류아동병원에서 원수님의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뜻을 깨끗한 량심과 헌신으로 받들어가는 참된 보건일군들이 고쳐주었습니다. …》

그가 정을 담아 참된 보건일군들이라고 외우는 사람들은 옥류아동병원 이비인후과 및 두경부외과 의료일군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환자에 대한 의료일군들의 정성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의 집중적표현입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의사 최성국동무는 퇴원대장에 1133번째의 환자를 기록하였다.

이름은 김일광, 나이는 11살, 사는 곳은 철원군 마방리…

일광이는 태여나 6개월후부터 귀를 앓기 시작했다. 미래의 총대감이 태여났다고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자랑하며 다니던 그의 부모의 얼굴에서는 점차 웃음이 사라져갔다. 일광이의 병을 고쳐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좀처럼 차도가 없었다. 그렇게 날과 달을 보내는 속에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슬같은 대동강의 맑은 물이 흐르는 평양시의 분수지구에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구현된 현대적인 아동병원을 일떠세워주셨다는 소식이 철원군의 산골마을에도 전해졌을 때 마을사람들은 그들의 등을 떠밀었다. 궁전같은 옥류아동병원에 척 들어서기만 해도 일광이의 병은 말끔히 나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어 리경옥녀성은 아들 일광이를 데리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우리 일광이의 귀를 꼐고 칠수 있을가요?》

리경옥녀성의 걱정이 섞인 물음에 최성국동무는 흔연히 대답했다.

《꼭 고칩니다.》

지금까지 그가 담당했던 어린 환자들의 부모들에게 한결같이 했던 말이였다.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속에 마련된 옥류아동병원에서는 그늘진 마음으로 병원문을 나서는 사람이 한명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무감을 자각하며 퇴원대장을 마주하는 의료일군들이였다.

《중앙홀에 있는 그림을 보았을겁니다. 세상에 부럼없다고 마음껏 소리치며 함박꽃같은 웃음을 짓고 달려가는 그 아이들속에 일광이의 모습도 있습니다.》

최성국동무의 목소리는 신심에 넘쳐있었다.

일광이의 귀를 검진한 결과 만성중이염이였다. 처음 과에서 진행된 의사협의회에서는 일광이의 귀를 근치술의 방법으로 치료하기로 토의되였다. 그렇게 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였다. 과장 김송란, 담당의사 최성국동무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들의 눈앞에 완공을 앞둔 옥류아동병원건설장을 찾으시여 이 병원은 우리 당의 보건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병원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지중지 사랑하시며 천만꽃을 기울여 가꾸어주시는 꽃망울들의 밝은 웃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의료일군들이 필요한것이다. 그러니 오직 원상회복만을 목표로 치료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그들은 만성중이염치료에서 권위가 있는 중앙병원의사들을 찾아가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런 걸음을 몇차례 반복하는 과정에 일광이의 귀를 유아소파술의 방법으로 치료하면 얼마든지 원상회복시킬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때의 기쁜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으랴.

긴장한 치료가 계속되였다. 3차례의 유아소파술과 수십차례의 처치를 진행하는 과정에 일광이의 몸으로 흘러든 약물은 그 얼마였고 의료일군들이 지새운 밤은 또 얼마였던가.

어느날 일광이의 입원실로 나이지숙한 로인이 찾아왔다. 어느 한 중앙병원에서 오래동안 의료일군으로 일한 최성국동무의 아버지 최동재로인이였다. 아들이 만성중이염을 앓고있는 어린 환자때문에 고심한다는 말을 듣고 그길로 달려온 최동재로인은 일광이의 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치료에서 해결해야 할 몇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아들의 침상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는 최동재로인과 의료일군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리경옥동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기의 친혈육도 아닌 남을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리경옥녀성은 남이 없는 내 조국이라는 말을 몇번이고 곱씹었다.

본사기자 조경철

2개월만에 찾은 고마운 사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생활기풍과 건전한 생활양식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어느날이였다. 선교구역의 어느 한 양어장에서 불현듯 아이들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울렸다.

길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너도나도 양어장으로 달려갔다.

깨여진 얼음장, 물우에 떠있는 작은 썰매, 양어장기슭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우는 아이들…

모여온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비장한 기색이 비끼였다. 그들이 저마끔 얼음구멍으로 뛰여들려면 그때 누군가 나는듯이 물속으로 뛰여들었다.

잠시후 물우로 솟구쳐오르는 그의 품에 얼굴이 떡지장같은 소년이 안겨져있었다. 소년은 한참만에야 의식을 차리였다.

그에게 인공호흡을 시킨다, 모닥불을 피운다 하며 바삐 뛰여다니던 사람들이 저마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제야 그들은 물속에서 아이를 구원해낸 그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길손들은 마치 제 자식을 구원해준 은인을 찾듯이 여기저기로 뛰여다니며 안타깝게 고마운 사람을 찾고찾았다. 그러나 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감동에 젖은 눈길들이 누군가 그에게 덮어주었던 솜옷을 오래도록 어루쓸었다.

소년의 부모는 고마운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이 아는것이란 중키에 나이는 50대이며 점심시간에 이곳을 지난것을 보면 이 근방에서 일할수 있다는것이 전부였지만 락심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개월후, 그들은 마침내 그 고마운 사람을 찾을수 있었다.

그는 력포구역국토환경보호관리부 부원으로 일하는 오석동무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오석동무의 손을 꼭 잡고 놓을줄 몰랐다.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을겁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을 너무도 응당한 일로, 너무도 범상한 일로 생각하고있었다.

이렇게 되여 물에 빠진 아이를 구원해준 주인공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지게 되였다.

이것은 평범한 날에 있은 일이였다.

그러나 그 하루에도 우리 시대 인간들의 모습,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의 면모가 비껴있는것이다.

바로 이런 화목한 대가정, 남이 없는 땅에서 우리가 살고있다.

신혁

미덕의 화원에서 우리가 산다

학부형을 울린 교원의 인사

지난해 4월 금성제1중학교 교원인 김은실동무는 새로 담임한 학급의 학생들가운데 특류영예군인의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근절을 맞으며 그의 가정부터 찾아갔다.

그날 김은실동무가 받은 감동은 컸다.

어제날 조국을 위해 몸바쳐 싸운 영예군인이 오늘도 그 한몸을 초불마냥 불태우며 혁명의 봇대를 힘차게 밀어가는 모습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것이다.

그때부터 중구역 교구동 47인민반에 사는 특류영예군인 리혁철동무의 가정에서는 명절날마다 김은실동무와 학생들이 성의껏 준비한 공연이 펼쳐지군 하였다.

특류영예군인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한 교육자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이끌려 올해 전근절에는 박금주동무와 김은숙동무를 비롯한 금성제1중학교의 수많은 교원들과 100여명의 학생들도 특류영예군인의 집을 찾아가 그의 온 가정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처럼 아름다운 소행을 남기고도 김은실동무는 오히려 훌륭한 영예군인가정을 찾으면서부터 학생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정신과 학습기풍이 더 높이 서게 되였다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놀라보게 성장하였다며 진정넘친 감사의 인사를 하여 특류영예군인 리혁철동무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생일날에 부른 소녀의 노래

4년전 11월 어느날 동대원구역 대신동 48인민반의 어느 한 집에 일찍 친부모를 여의고 년로한 할머니와 함께 사는 나어린 소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김창진, 김대렬, 계명근동무를 비롯한 구역당위원회의 일군들이였다. 로근한 솜옷과 솜신, 책가방, 학용품 등을 한아름 안고 들어선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영애는 방금전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사람이 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이라는것을 뒤미처 알게 되였다.

그날부터 고마운 사람들이 매달 어김없이 꼭꼭 집문을 두드릴 때마다 영애의 기쁨은 이루말 없었다.

지난해 영애가 동대원구역 김창복고급중학교에 입학한 날에는 김정옥교장과 조증협담임교원이 그에게 입식으로 마련한 학용품을 안겨주었고 올해 1월 그의 생일날에는 많은 식료품을 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다.

그날 류달리도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영애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부르고나서 《아버지, 어머니들, 저도 이제는 웃음도 많고 노래도 많은 쾌활한 학생으로 되였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마음속 격정을 터쳐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마음속에 그려보는 사랑의 꽃바다

박천군 송석리에 사는 특류영예군인 박성호동무가 인민보안원 김광철동무를 처음 알게 된것은 5년전 6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눈은 어떻게 되여 다치였고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있는가를 묻기도 하고 성의껏 마련해온 닭곰과 당과류, 과일까지 안겨주는 김광철동무의 모습이 앞 못 보는 그의 마음속에 마치 친형의 얼굴처럼 그려졌다.

얼마후부터는 김광철동무와 함께 박천군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일군 김선호, 당세포위원장 장성철, 인민보안원 강영권, 허춘영동무를 비롯한 많은 보안원들이 친동생의 집을 찾듯 특류영예군인의 침문턱을 허물없이 넘나들었다.

그 나날 앞 못 보는 그의 심정을 헤아려 록음기를 마련하여주면서 언제나 우리 당의 목소리를 신념과 의지의 초석으로 삼고 락천적으로, 혁명적으로 생활해나가라고 힘과 용기를 주었고 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는 뜻깊은 기념품도 안겨주었으며 올해 전군절에는 훌륭한 보금자리까지 마련해주었다.

박성호동무는 비록 광명을 잃었지만 이런 훌륭한 인민보안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진정에서 오직 우리 나라에만 있을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꽃바다를 눈앞에 그려보며 오늘도 혁명의 꽃을 더 활짝 피워가고있다.

장정철

농장의 자랑—형제작업반장

정주시 오산협동농장에는 일 잘하기로 소문난 형제작업반장이 있다. 그들이 바로 제1작업반장 리택건동무와 제10작업반장 리택균동무이다.

비록 농장에서 일한 년한에는 차이가 있어도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초급일군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협동벌에 바쳐가는 애국의 마음은 하나같이 뜨겁다.

언제나 말없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작업반을 이끌어나가는 그들을 두고 농장원들은 우리 작업반장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며 따른다.

모내기를 제철에 남먼저 끝낸 기세로 농작물비배관리에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고 장마철피해대책을 위한 물길공사도 서로 합심해가며 빈틈없이 해나가는 그들형제작업반장을 두고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오늘도 그들은 뜻깊은 올해에 기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념을 안고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림영남

현대의학발전추세에 맞게 치료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집체적협의를 잘하고있다.
—류경치과병원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

배천군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이 제시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는 오늘 우리 일군들이 들고나가야 할 애국의 구호입니다.》

지난 3월말 어느날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 과수제2작업반마을에서는 주민들을 놀라게 하는 광경이 벌어졌다. 이른아침 난데없이 어퍼대의 화물자동차들이 나타나 마을앞에 있는 개울가에 모래와 막돌, 자갈을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부리워놓는것이였다.

창밖을 내다보며 마을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기웃거리기만 하였다.

다음날 여러명의 인민보안원들이 개울바닥을 파제끼며 기초공사를 할 때에야 마을사람들은 그들이 개울에 다리를 세우려 한다는것을 알고는 그만 가슴이 뭉클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 바로 그렇게 시작된 일이였다.

그 개울로 말하면 여느때는 물이 얼마 흐르지 않다가도 일단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사람들이 건느지 못하게 불어나군 하였다. 그때면 마을아이들은 등교길을 멀리 에돌아야만 했다.

이 사실앞에서 박길선, 리광수동무를 비롯한 배천군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들은 다리건설을 자신들의 과제로 받아안았다. 이것은 인민의 참된 보안원들만이 스스로 받아안을수 있는 량심의 선택이였다.

어떤 사람들이 떫떫 안되는 아이들때문에 그렇게 큰 공사를 벌릴 필요가 있겠는가고 할 때 리광수동무를 비롯한 인민보안원들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외진 섬과 산골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분교가 일떠서고 통학버스, 통학렬차가 달리는것이 우리 사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의 후대사랑이라고.

떫떫 안되는 인원으로 다리건설을 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가슴깊이 새겨안은 인민보안원들은 짧은 기간에 새 다리를 건설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렸다. 그들은 큰돌이 나타나면 함마와 정대로 까내고 시간이 모자라면 밤을 새우면서 일정계획대로 다리건설을 내밀었다.

《이 황이면 튼튼기재도 다닐수 있게 든든하게 건설합시다.》

정철호, 정금룡동무를 비롯한 인민보안원들은 인민을 위한 사색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하나의 공정들마다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하여 집체적지혜를 합치였다.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스스로 맡아나선 송영철, 김룡국, 리현철동무들이며 불편한 몸으로 다리건설장을 뜨지 않은 박길선, 리광수동무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가슴을 울렸던가. 뜻깊은 태양절에도, 그 다음날에도 그들은 다리건설장으로 달려나갔다.

인민보안원들의 소행에 감동된 마을사람들도 팔을 걷고나섰다.

다리를 건설하는 기간 인민보안원들은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부담도 주지 않았으며 마을로 들어서는 도로에 암거도 든든하게 설치하였다. 하기에 새 다리가 건설되자 마을사람들은 다리의 란간을 쓸고 또 쓸면서 말하였다. 인민의 보안원들이 정말 다르다고.

농촌마을에 일떠선 새 다리, 그것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창조물이였고 인민의 웃음을 날마다 더해주는 기쁨의 다리였다.

본사기자 홍성철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두 제도에 비낀 녀성들의 권리와 존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올해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 아침 평양산원 앞마당은 여느때없이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였다.

지난해 11월초 이곳 사랑의 요람에서 태여난 청진의 네쌍둥이가 평양산원을 떠나는것이였다. 산모는 평범한 로동자인 리봉향녀성이였다.

사랑의 보석주단을 지나 만사람의 축복속에 평양산원문을 나서는 네쌍둥이어머니,

그가 비행기에 실려 급히 후송된 그때로부터 160여일동안 평범한 로동자인 산모의 순산과 네쌍둥이의 건강을 위해 바쳐진 사랑과 정성은 얼마였던가.

네쌍둥이뿐이 아니였다. 지난해에만도 평양산원에서는 이들까지 합하여 12쌍의 세쌍둥이, 네쌍둥이가 태여났다.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을 낳은 산모들은 의사, 간호원들의 보호속에 한달동안 평양산원에서 보약을 써가며 건강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받고 아기들은 몸무게가 기준수치에 이를 때까지 국가가 의무적으로 키워준다.

그들만이 아닌 온 나라 녀성들의 해산과 아기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임신, 해산한 녀성들과 갓난애기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혜택인 산전산후휴가제가 법제화되고 그 실시가 의무화된 우리 나라이다.

하건만 세상에는 그처럼 《번영》과 《발전》, 《문명》을 목터지도록 자랑하면서도 이에 대한 법률이 없는 나라가 있다.

미국이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괴상망측한 법들이 많고많은 미국이지만 녀성들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법률가운데서 유급산전산후휴가에 관한것은 도대체 찾아볼수 없다.

지난해 12월 유엔 《법률 및 실천에서의 녀성차별문제 실무그루빠》는 현지료해를 진행한 후 미국에서 여전히 보편적인 유급산전산후휴가, 정치선거에서의 평등한 기회 등 녀성들의 권리와 보호조치들이 리행되지 않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로동자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국가들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에서 녀성들은 임금보장에서도 차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9월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미국에서 직업녀성들의 년평균로임은 직업남성들보다 엄청나게 적었다고 한다.

일자리를 구하는데서도 녀성들은 녀성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차별을 받고있다. 몇해전 미국의 첨단과학기술기업들에 대한 취직정형을 분석해본 결과 백인남성이 백인녀성에 비해 42%, 아시아계녀성에 비해서는 무려 260%에 달하는 우세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녀성들은 각이한 형식의 성희롱 및 성침해를 당하고있다. 미국에서 얼마나 녀성들에 대한 성범죄가 우심하게 나타났으면 미국대통령조차도 화상연설에서 《미국녀성 5명중 1명은 강간 혹은 강간미수피해자이다.》라고 개탄하였겠는가.

이것이 바로 《인권모델국》, 《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며 세계의 면전에서 날뛰는 미국의 진면모이다.

녀성의 참다운 권리와 존엄은 바로 선군의 혜발아래 날을 따라 더욱더 부강번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만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날수 있다.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녀성들의 천국 내 나라에 넘치는 녀성존엄의 메아리는 그 얼마나 자랑찬것인가.

사랑의 요람 평양산원을 떠나가는 청진시의 네쌍둥이어머니 리봉향녀성이 가슴에 새긴 진리였고 그를 바래주며 평양산원 일군들이 다시금 뼈에 새긴 확신이였다.

본사기자 김치곤

◇ 단상 ◇ 신천의 쇠사슬

얼마전 우리는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낱낱이 발가놓는 력사의 교발장 신천박물관을 찾았다.

저 쇠사슬일수도 있다. 전황해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였던 리봉진동지에게 악형을 가하는데 리용했던 쇠사슬이.

놈들은 그에게서 당과 국가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중세기적인 고문을 들이댔다. 미제승냥이놈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온몸에 바늘을 꽂았으며 어깨에다 못을 박고 송창으로 두눈을 도려내였다. 그러나 그의 심장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신념과 의지는 묶을수 없었다.

어제날 짐승처럼 노예살이를 강요당해야만 했던 자기들을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고마운 인민의 정권을 누가 과연 버릴수 있겠는가고 발악했다.

미제승냥이놈들에 대한 복수의 불길로 심장을 끓이며 교양마당으로 들어서던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전율의 기둥사이로 쇠사슬이 보였다.

금시라도 피비린내가 풍겨오고 아츠러운 쇠사슬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다.

원쑤놈들은 저 쇠사슬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념을 묶어보려고 발악했다.

저 쇠사슬일수도 있다. 전황해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였던 리봉진동지에게 악형을 가하는데 리용했던 쇠사슬이.

놈들은 그에게서 당과 국가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중세기적인 고문을 들이댔다. 미제승냥이놈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온몸에 바늘을 꽂았으며 어깨에다 못을 박고 송창으로 두눈을 도려내였다. 그러나 그의 심장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신념과 의지는 묶을수 없었다.

어제날 짐승처럼 노예살이를 강요당해야만 했던 자기들을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고마운 인민의 정권을 누가 과연 버릴수 있단 말인가.

미제는 오늘도 우리 인민에게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려고있다.

허나 우리 인민은 다시 노예로 살수 없다.

노예, 이것은 곧 죽음이다.

신천의 쇠사슬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웨치고있다.

자기를 키워준 고마운 제도를 지켜 교수대에도 서슴없이 올라서는 그런 신념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승리자가 될수 있다고.

본사기자

철천지원쑤 미제를 천백배로 복수할 멸적의 의지로 가슴끓이고있다.
—김형직사범대학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반미계급교양의 도수를 높여

순천지게차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반미계급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감행한 치떨리는 살인만행자료들을 가지고 계급교양사업을 참신하게 하고있다.

그와 함께 최근시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전쟁연습과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교양사업도 짜고들고있다.

특히 반미계급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그 실효성을 최대로 높이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이 우리 조국이 떨쳐온 자랑찬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잘 알도록 교양사업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반미대결전에서 영원히 승리만을 떨칠 백승의 의지를 더 굳게 가다듬게 하고있다.

순천지게차공장의 종업원들은 오늘도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가슴 불태우며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혁신적성과로 빛내여가고있다.

본사기자

무지와 오판으로 차례질것은 파멸뿐이다

동방의 핵강국의 위력이 세상에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최근 우리 공화국은 미제의 날로 로골화되는 핵전쟁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력강화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페지는 우리의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에 대해 헛나발을 불어대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선군조선은 적대세력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 본거지들을 순식간에 불마당질해버릴것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준것으로 된다.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조선문제전문가들은 조선의 비약적인 국방력발전은 김정은명도자께서 한번 내린 명령은 빈말이 아니라는것, 대외적으로 북조선이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되여있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었다고 하였다.

미국의 언론들은 조선이 력사상 류례없는 놀래속에서 핵 및 미싸일기술을 발전시키고있는것은 놀라운 일이다, 조선의 지난 시기 미싸일발사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 등은 쾌한 수고를 한다고 비웃었으나 그것은 괌도까지 타격할수 있는 무기로 등장하였다, 조선의 핵 및 미싸일개발속도가 상식을 초월하는것으로 하여 국제사회가 미처 그에 대응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조선에서는 김정은명도자께서 명령하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관철하는것이 철칙이다, 미국으로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때문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관단과 예측이 자주 빗나가고있는것이다라고 전하고있다.

시대를 주름잡으며 만리마속도로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당국자들의 무지와 오판이 빚어낸 후과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평가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된 우리 공화국은 조선인민군의 영웅적력사가 응축되여있는 열병식을 통해 천만군민이 억척같이 다져온 무진막강한 위력을 시위하였다. 도발의 본거지들을 섬멸의 조준경에 잡아넣고 무자비한 불뢰성을 터칠 포탄들이 만장약되여있는 강철포신들과 로케트들, 최첨단무장장비들이 공개되였다. 특히 전략로케트를 비롯하여 우리 식의 최첨단무장장비들과 초정밀타격수단들은 침략의 무리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무자비한 불벼락, 상상할수 없는 강력한 타격을 안길 만단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의 국방공업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것을 실천적으로 힘있게 확증해주었다. 세계는 부러움과 경탄의 목소리를 터쳤다.

그러나 적대세력들은 그것을 불안과 공포의 눈길로 주시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만 신경을 썼다.

허장성세하는데 버릇된 미국은 남들도 그렇게 할것이라고 넘겨짚고 우리가 열병식에서 보여준 무장장비들을 가장물로 선전하였다. 미국이 우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깎아내리려 하고있는데는 제나름대로의 타산이 깔려있다.

공화국에 대한 제재가 은을 낸다는것을 보여주자면 우리의 최첨단무장장비들을 파소평가해야 하는것이다.

상대방을 모르면 백번 패하기마련이다. 미국이 1950년대에 조선인민을 잘못 보고 달려들었다가 어떤 비참한 참패를 당했는가 하는것은 일일이 헐거할 필요가 없다.

1960년대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고도 덜미를 잡힌적이 없다고 자랑하던 미국이 조선에서만은 돌이킬수 없는 큰 봉변을 당하였다. 미국이 조국의 땅과 바다, 하늘을 철벽으로 지키고있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덜미를 잡히면 뼈도 추리지 못한다는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루에블로》호나 《EC-121》대형간첩비행기를 들이밀지 못했을것이다. 어떤 담력과 배짱을 지닌 상대에게 무장간첩선이 나포되였는가 하는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보복》이니, 《전면전쟁》이니 하고 우들렁거리며 물리적힘으로 배와 선원들을 찾아가려고 어리석게 놀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째배당하지 않았을것이다.

당시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사설에서 《세계최강을 뽐내던 우리 미국이 뒤물목의 서툰 싸움군처럼 작은 나라 조선에 한대 얻어맞고 코피를 흘리고있다고 한 표현이 아마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고 쓴바와 같이 미국은 조미대결에서 상대를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기록하였다.

조미대결사는 한마디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무지와 오판의 력사, 그로 인한 패배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그것이 다시한번 확증되였다. 미국은 우리와는 절대로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키고 핵무력사용까지도 폭언한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떠밀었다.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굴복하기를 기다린다는 《전략적인내정책》이라는것을 내놓고 추종세력들과 어중이떠중이들까지 총동원하여 몸에없는 대조선《제재절의》를 조작하고 우리의 면전에서 《제도붕괴》와 《수뇌부제거》를 노린 전쟁불장난소동을 벌려놓으며 오만방자하게 놀아대여 우리 공화국을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만들었다.

우리는 적들의 핵팡탄을 강위력한 선군총대로 호되게 탑새김으로써 극악한 원쑤들을 기절초풍, 혼비백산케 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해보려는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은 총파산되였다. 미국은 오산하였다.

찍하면 힘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초대국흉내를 곧잘 내던 미국의 꼴이 가긍하게는 되였다.

침략과 전쟁으로 비대해진 횡포한 미제와 직접 맞서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안기고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제재와 봉쇄도 강행돌파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일심단결된 힘은 원쑤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골젖어 편견과 망상으로 일관된 《전략》만을 고집해온 미국의 참패는 불가피하다.

현실감각이 무디면 정책상오유를 범하기마련이다.

미국은 어전히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할수 없다고 잠꼬대같은 소리를 웨치고있다.

적들이 인정하든 말든 동방의 핵강국은 국제무대의 중심에 우뚝 솟아있다. 우리의 전략적지위는 달라졌다. 조선반도에서 조미사이의 힘의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핵억제력강화로 대탑하는것은 우리의 기질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책동의 도수를 높이는만큼 우리의 핵공격능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될것이다.

미국은 반미대결전에 나선 우리 인민의 의지를 알수 없다. 그들의 셈법으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감히 헐수 없다.

무지와 오판이 미국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이 군사적압박과 제재와 봉쇄로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시키겠다는것은 어리석은 개꿈이다.

돌이켜보면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에 환장이 되여 우리에게 참혹한 전쟁을 강요하였고 우리가 빈터우에서 허리띠를 조이면서 힘들게 복구하면 또 새로운 침략의 위협을 몰아왔다. 인민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하면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로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그처럼 간고한 고난속에서도 항상 배심든든히 돌진하였다. 총이 없는 백성은 망국노의 설움을 면치 못하며 혁명의 총대우에 인간의 존엄도 행복도 있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새긴 우리 인민은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났다.

미국이 우리를 무장해제시켜보려고 보지름을 써왔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오늘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다.

대조선정책에서 미국은 전퇴망난의 치지에 빠져있다. 미국은 발작적으로 최후의 도박을 놓고있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능력을 《초토화》해버리려고 《정밀공습작전》계획까지 짜놓고 이 땅에 무서운 핵재난을 들씌우려 하고있다.

날강도 미제가 핵으로 우리를 이해보려는것은 파멸을 촉진하는 길이다.

미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과 《붕괴》타령을 공공연히 줴치면서 핵전쟁장비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어 미친듯이 전쟁소동을 벌리고있지만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천만군민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의 강위력한 핵공격능력에 대하여 핵광신자들은 똑바로 보아야 한다.

리 현 도

인종차별제도가 낳은 필연적산물

최근 미국에서 당국의 반인륜적인 인종차별정책에 격노한 군중들의 시위가 전국도처에서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5일과 6일 루이지아나주의 배턴루지시와 미네소타주의 셀트폴시에서 백인경찰들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련이어 감행되여 사람들의 격분을 불러일으킨것이 그 발단으로 되였다.

배턴루지시 경찰들은 무방비상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앨톤 스털링에게 다짜고짜 달려들어 항거하는 그의 가슴과 등에 여러발의 총탄을 퍼부어 무참히 죽이였다.

한편 셀트폴시에서도 경찰이 승용차에 앉아있던 필란도 캐스틸이라는 흑인청년을 아무런 리유도 없이 짐승처럼 쏘아죽이는 야수적만행을 저질렀다. 피부색이 검다는 단한가지 리유로 하여 사회적천대와 멸시의 대상, 백인들의 사냥목표로 되는것이 바로 미국흑인들의 처지이다.

루이지아나주와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진 흑인살해사건들에 대한 동영상자료가 인터네트를 통해 공개되자 이를 묵인조장한 당국의 비인간적인 인종차별정책을 폭로단죄하고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을 끝장낼것을 요구하여 수많은 군중이 항의행동들에 떨쳐나섰다.

항의투쟁은 아칸소주, 아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도주, 죠지아주, 일리노이스주 등 전국적범위에로 급속히 확대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손들었으니 쏘지 말라》 등의 프랑카드들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끊임없이 감행되는 백인경찰들의 흑인사냥에 격분을 표시하였다.

미네소타주 지사는 《만일 운전사나 려행자가 백인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었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다.》고 토로하였다.

시위자들의 기세에 위협을 느낀 미당국자들은 많은 경찰무력을 시위탄압에로 총동원하여 흑인들을 닥치는대로 잡아들이고있다.

경찰들은 뉴욕과 시카고를 비롯한 각지에서 일어난 시위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약 200명의 무고한 흑인들을 체포하였다.

이 나라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흑인의 76%, 백인의 45%가 미국의 사법체계는 흑인들을 반대하는 사법체계이라고 비난하였다.

로씨아외무성 인권문제담당 전권대표 콘스탄찐 돌고브는 달라스에서의 경찰저격사건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흑인을 살해한 경찰을 처벌하지 않은 최사로 인해 초래된 직접적인 결과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인종차별문제에 신중히 대처하도록 미국정부를 각성시키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날로 격화되는 인종간 대립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뿌리깊은 인종차별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다.

미국집권세력들은 철면피한 《인권타령》을 걷어치우고 인종간 대립의 란무장으로 화한 부패하고 반인륜적인 사회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평양 7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영국에서 이라크전쟁의 부당성을 밝힌 공식보고서가 발표된것과 관련하여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2009년에 영국정부가 조직한 이라크전쟁진상조사위원회가 7년간의 조사끝에 2003년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쟁이 비법적이고 부당하였다고 결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전쟁의 직접적동기로 되였던 이라크의 《생화학무기생산》과 《대량살륙무기위협》에 대한 미국의 주장이 전혀 무근거한것이였으며 대다수 유엔안보리사회 성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쟁이 강행되였다는데 대하여 밝혔다.

이번에 영국이 《대량살륙무기위협》이라는 미국의 날조에 따라 일어난 이라크전쟁의 비법성을 공식 인정한것으로 하여 미국이야말로 국가테로와 인권유린, 세계를 휩쓰는 온갖 불행의 화근이라는것이 다시한번 증명되였다.

미국은 수많은 무고한 이라크주민들의 죽음과 이라크국내정세의 혼란, 중동지역에서 만연하고있는 이슬람교극단주의와 테로, 피난민위기 등 국제적인 안보위협을 몰아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해 비렬한 모략과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꺼리낌없이 감행한 미국은 마땅히 극악한 전범국, 인권유린국으로서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이 《국제재판》행세를 하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자주권침해행위를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국이 최근 반공화국책동에 열을 올리다 못해 《인권문제》를 운운하며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걸고드는 무엄하기 그지없는 망동을 부린것은 천추에 용서받을수 없는 죄악중의 대죄악으로, 특대형범죄로 된다.

제반 사실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자기 힘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우리가 오늘과 같은 최강의 자위적군사력을 갖춘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전쟁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감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대미문의 악랄한 적대행위와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다.

경제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반인민적악정

지금 남조선집권세력은 대내외정책의 총체적실패와 그로 인한 정치경제적파국과 혼란으로 하여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최악의 통치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반인민적악정으로 모든것을 망쳐놓은 박근혜일당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민주로총과 《전교조》 등 진보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한 반《정부》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더이상 못살겠다. 갈아엎자.》, 《폭압적이며 독재적인 〈정권〉을 끝장내자!》, 《박근혜 퇴진!》, 《반역〈정권〉 타도!》…

투쟁의 거리들마다에서 터져나오는 이 함성들은 반역패당에 대한 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증오와 울분의 폭발이다. 한줌도 못되는 재벌들의 리익만을 중시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도탄속에 몰아넣은 박근혜일당의 죄악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현 괴뢰집권세력은 외세의존적이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경제정책으로 남조선경제를 극도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박근혜는 자기가 집권하면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하면서 재벌 허세를 부리였다. 하지만 역도의 집권으로 남조선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였다.

남조선경제는 자본과 기술, 원료와 시장 할것없이 모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고있는 식민지예속경제이다. 그런데 박근혜역도는 남조선 각계가 《제2의 을사5조약》으로 배격하는 미국남조선《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리행》을 떠들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을 미국에 통째로 섬겨바치고있다. 쌀시장개방책동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금 남조선농업은 총파산의 위기에 처하고 농민들은 생존권을 잃은 울분을 터뜨리고있다.

괴뢰집권자가 그 무슨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남조선의 무역품종의 83%가 경쟁에서 밀려나고 수출기업의 50%이상이 피해를 입고있으며 주변나라들의 경제악화로 남조선경제의 명줄인 수출액은 계속 줄어들어 올해 2월에는 지난해 2월에 비해 12.2%나 낮아졌다.

경제에 문외한인 청와대안방주인이 무지막지하게 추진한 《경기부양정책》은 남조선경제를 천문학적인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하는 비참한 결과를 빚어냈다.

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하는바와 같이 남조선경제는 사실상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보다싶이 남조선경제는 외세의존적인 자체의 구조적취약성과 외부세계의 영향 그리고 보수집권세력의 엉터리경제정책으로 하여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도의 위기속에 허덕이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부패무능하고 암둔한 박근혜때문에 경제가 끝이 없는 위기의 진펄속으로 빠져들고있다고 개탄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현 괴뢰집권세력은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친재벌정책으로 경제파국을 재촉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을 심화시킨 반역무리이다.

박근혜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그 무슨 《경제민주화》를 기본공약으로 내들고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느니 뭐니 하는 꿀발린 수작을 요란하게 늘어놓았었다. 하지만 《대통령》벙거지를 쓴지 얼마 못되여 《경제민주화》공약을 백지화해버리였다.

근로대중을 《말하는 기계》, 《지지대수록 기름이 나오는 비지덩이》로밖에 여기지 않는 박근혜역도의 반인민적정체는 《규제는 암》이라고 고아대며 재벌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주들에게 구조조정을 마음대로 실시할 권한을 준데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역도가 들고나온 철도, 전력,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도 본질에 있어서 재벌기업들에 새로운 먹이감을 무제한으로 안겨주는 극히 반동적인 친재벌정책이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괴뢰패당은 재벌들이 세금을 비롯한 각종 측면에서 특혜를 받도록 법까지 개정하는 망동도 부리였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재벌들이 더욱 판을 치는 속에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파산되고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전락되는 험악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괴뢰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는 10년전의 8.8배에서 12배로 더 벌어졌다.

절대다수 인민들이야 죽든 살든, 경제가 파국에 처하든 말든 극소수 재벌들의 리익만 보호해주면 된다는 박근혜패당의 재벌중시정책은 민생을 여지없이 파괴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실업자대렬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2013년에 350여만명이였던 실업자가 2014년에는 450여만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취업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무려 50여만명이나 된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력대 최고인 12.5%를 기록하고있다.

실업자들이 거리와 광목에 차넘치고 모진 생활난을 못이겨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 남조선은 자살률에서 망신스러운 세계 첫자리를 기록하고있다. 박근혜가 집권하여 불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인사말인 《안녕하십니까.》가 보수당국을 규탄하는 류행어로 된 사실 하나만을 놓고서도 각계각층의 근로인민들이 편안하지 못하고 절망과 비판, 원한과 분노속에 날과 달을 보내야 하는 남조선의 험악한 현실을 잘 알수 있다.

박근혜패당이 지난 3년 남짓한 기간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반인민적악정을 일삼은탓에 경제도 민생도 다 란장판이 되고 남조선인민들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현 괴뢰집권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가도 남조선이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헤여날수 없고 인민들이 초보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을수 없다.

이것을 뻐저린 교훈으로 새겨안았기에 남조선의 진보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지금 반역통치를 일삼는 박근혜일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날로 격렬해지고있는 로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은 류례없는 반인민적악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도륙내고 남조선을 사람 못살 생지옥으로 만든 역적무리를 기어이 력사의 심판대에 올려세우려는 불같은 의지의 분출이다.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거역하며 반역을 일삼는 독재자들은 결코 오래 갈수 없다.

반역통치의 종착점은 파멸이며 죄는 지은대로 가기마련이다.

근로대중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는 반역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민생을 사상 최악의 도탄속에 몰아넣은 박근혜패당은 분노한 인민들의 대중적항거에 의해 수치스러운 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심 철 영

유인랍치된 공화국 녀성공민들의 신상공개를 남조선당국에 요구

12일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국제대사령이 성명을 발표하여 집단유인랍치된 우리 공화국 녀성공민들의 신상을 공개할것을 괴뢰정부에 요구하였다.

성명은 북의 녀성들에 대한 추측과 주장들이 많지만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조선《정부》는 북의 녀성들이 신속히 가족과 만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남조선강원도주민들 금강산관광재개를 요구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11일 남조선강원도 고성군주민들이 서울의 괴뢰정부종합청사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할것을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정부》가 금강산관광재개를 계속 외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광중단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실현될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지지한다

민족의 대단결에 통일이 있다

범민련 재미본부 성명 발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재미본부가 2일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를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북이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실천적조치의 일환으로 북측준비위원회를 내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성명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다고 하면서 조국이 해방된지 71년이 되여오는 오늘도 조국의 분렬은 끝나지 않고 정전상태에서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군사적인 긴장상태가 더욱 고조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범민련 재미본부는 력사적이며 범민족적이고 애국적이며 자주적인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제안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통일은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성원들의 단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한민족으로서 마주앉아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분렬과 대결의 71년을 끝장낼 결의를 함께 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미 북과 남이 합의한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정신대로 자주적으로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평화적으로 통일국가를 이룩할 방도들이 있다.

우리 민족끼리가 우선이다.

이번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제안은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상태를 끝장내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민족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여 조국의 평화번영과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의 정의로운 평화에 이바지하는 길로 갈것을 호소한다.

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자

재미동포인사의 글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이 6월 30일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를 지지하여 론설위원 장광선이 쓴 글을 실었다.

글은 올해 8.15를 전후하여 북과 남의 당국과 해내외 정당, 단체대표들,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적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북의 제안은 해내외동포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북의 제안은 평화통일지향적인 정당, 사회단체와 개인들뿐아니라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굽히지 못하고있는 박근혜《정부》와 여당 등 현 보수집권세력까지 포함시키는 민족공동회의를 구상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글은 밝혔다.

글은 특히 이번 제안은 남조선정보원이 해외근무중이던 조선공민 10여명을 백주에 랍치한 패륜행위로 하여 조선인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있는 상태에서 나온것으로 하여 북이 이 엄중한 긴장국면을 뚫고 평화분위기를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심하며 노력하고있는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선전공세》라고 떠벌이며 로골적으로 거부하고있다고 글은 비난하였다.

글은 우리 해외동포들은 박근혜일당에게 민족적량심과 평화에 대한 열망, 통일의지가 눈곱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바이지만 이번의 간곡한 북의 제안마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걷어차버리려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단죄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이로써 민족대단결을 선명한 7.4공동성명까지도 완강하게 거부하였다고 글은 규탄하였다.

글은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단체와 개별인사들은 북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여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진지하고 혁신적인 발기와 제안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개편지를 지지하여 6월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낸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새롭게 제시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는 장장 70여년에 걸친 분렬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민족의 존엄과 명예가 만방에 빛나는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소중함을 깊이 자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진지하고 혁신적인 발기와 제안들을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해방 일흔한돐이 되는 올해 8.15를 전후하여 북과 남의 당국과 해내외 정당, 단체대표들,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적대회합을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할것을 제의하였다.

공개편지는 남조선당국에 오늘의 중대국면에서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신들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공화국의 진정어린 제안과 조치들에 적극 호응해나서려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통일을 위한 민족적대회합을 지지한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출판보도물

미국을 세계최대의 군수품장사군으로 락인

중국의 인민망이 최근 《미국의 군수품판매가 가져다주는것은 평화인가 아니면 전쟁인가》라는 제목으로 미국이 세계최대의 군수품장사군이라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의 군수품판매액이 470억 8 500만US$로서 세계적인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미국은 무려 171개 나라에 막대한 량의 군수품을 팔아먹었다. 이것은 2014년에 비해 36%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2011년-2015년 미국의 군수품판매량은 세계판매총량의 3분의 1에 달하였다.

인민망은 미국의 방대한 군사기구와 거대한 군수공업복합체가 미국력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라고 비평하면서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기계인 동시에 전쟁을 근본적으로 없애는데서 해결하기 가장 힘든 실체이라고 단죄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핵연구쎈터건설계획

불리비아정부가 핵연구쎈터를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수도코외에 건설될 이 쎈터에서는 핵에네르기를 의학, 농업 등 분야에 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쎈터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고있다. 8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건전한 생활기풍 수립

가나에서 최근 건전한 생활기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8일 정부는 어린이새정범죄에 관한 사진이나 동영상자료들을 소유하고 류포시키는 행위들을 장악통제하며 책임있는자들에 대한 법적처벌을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나라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색정범죄행위를 종식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고 한다.

고속도로건설계획

탄자니아가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나라의 서남부국경지역에 건설되는 이 고속도로는 길이가 105km에 달한다고 한다.

8일 정부는 이에 대해 밝히면서 새 고속도로는 나라의 국경무역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양 끝 라 의 도 시

ㄱ-61113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